

보도자료

2010년 1월 13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융합정책관 방송통신녹색기술팀 김광수 팀장(☎750-2190)

방송통신녹색기술팀

최승만

사무관(☎750-2198)

csn7over8@kcc.go.kr

최시중 위원장, 벤처업계와 신년하례회

“ 올해가 제2의 벤처시대 원년이 되도록 ...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10.1.13(수) 벤처업계 신년 하례회(르네상스서울호텔, 11:00 ~ 13:00)에 참석하여 벤처기업 CEO,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벤처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행사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 CEO 등 우리나라 벤처업계의 핵심관계자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경인년 한해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다.

이 자리를 통해 최시중 위원장은 ‘벤처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열쇠이며, 중소벤처기업은 경제의 활력소’라고 강조하며, 올해가 제2의 벤처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벤처업계의 노력과 지원을 당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벤처 CEO들과의 간담회를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애로사항과 정책제안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붙임 1. 벤처업계 신년하례회 행사계획 1부.
2. 최시중 위원장 격려사 1부.

2010년 벤처업계 신년하례회 행사계획(안)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0년 벤처업계 신년하례회
- 일시 : 2010. 1. 13(수) 11:00 ~ 13:00
- 장소 : 르네상스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역삼동소재)
- 공동주최 :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참석인원 : 벤처기업 CEO 등 200명

※ 주요 참석자 : 중소기업청장(홍석우), KT 회장(이석채), 한경대 총장(김성진) 등

□ 주요 진행일정

| 시 간 | | 내 용 | 비 고 |
|---------------|-----|-----------------|-----------------------------------------------------------|
| 11:00 ~ 11:20 | - | ·참석자 등록 | |
| 11:20 ~ 11:23 | 3분 | ·개 회 | ·사회자 |
| 11:23 ~ 11:30 | 7분 | ·내빈 소개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
| 11:30 ~ 11:35 | 5분 | ·인사말씀 | ·벤처기업협회 회장 |
| 11:35 ~ 11:40 | 5분 | ·격려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 11:40 ~ 11:45 | 5분 | ·축사 | ·중소기업청 청장 |
| 11:45 ~ 12:05 | 20분 | ·기념촬영 ·축하이벤트 | ·떡 커팅식 및 기념 촬영 ·축하 이벤트(붓 퍼포먼스) |
| 12:05 ~ 13:00 | 55분 | ·축하건배 및 오찬 |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KT 이석채 회장 ·한경대학교 총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2010년 벤처업계 신년하례회

격 려 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 일 시 / 2010. 1. 13(수) 11:00 ~ 13:00

□ 장 소 / 르네상스서울호텔(3층 다이아몬드볼룸)

존경하는 벤처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중소기업청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과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벤처업계 여러분들과
신년하례식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컸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올해는 5%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하는
희망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우리 기업들의 땀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올해는

21세기 첫 10년을 마무리하는 전환점이자,
새로운 10년을 선도하는 출발점입니다.

100년 전 국권침탈의 수모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당당히 국제사회 주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튼튼하게 다지도록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벤처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열쇠이며
건강한 중소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활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위기와의)

지금 세계는 경제위기와
지구환경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으며,
신종플루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 출현하여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무한한 벤처시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쌓아온
IT 경쟁력이 바탕이 된다면
벤처를 꿈꾸며 도전하는 젊은 기업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첨단 IT기술은
금융,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모든 분야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며,

전 세계를 연결하는 방송통신 인프라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빠르게 확산시키며
성공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지난날 IT가 벤처시대를 열었듯이,

저를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며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디지털화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3차원 입체 TV, 모바일 IPTV를 선보여
방송통신 강국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R&D 지원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새로운 미래서비스를 발굴하여
벤처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올해가 제2의 벤처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말,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원전공사 수주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도전해 간다면
벤처기업인 모두가 커다란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벤처기업협회 서승모 회장님,
한국여성벤처협회 배희숙 회장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도용환 회장님을 비롯해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벤처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모든 벤처가족들의 성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